

현대자동차

HYUNDAI MOTOR NEWS 2018. 07. 24 Vol.954

발행처 현대자동차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2 제1호 문화홍보팀 나형진 기자 | 울산홍보팀 이정탁 기자 | 아산충무팀 이성규 기자 | 전주충무팀 이우영 기자 | CS혁신팀 박솔지 기자 | R&D문화개발팀 손지한 기자

NEWS



양산형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 전 세계 최초 공개



THEME

특별한 하루,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여러분을 만나봅니다.



Make

PEOPLE

맛있는 데이트

'판매 거장'과 후배 카마스터들의 이유 있는 의기투합

입사 이후 꾸준히 높은 영업 성적을 기록하며
판매 거장에 오른 영업 노하우를 후배 카마스터들에게 공개한
데이트 현장에 함께합니다.



TRAVEL

이야기 따라 발자국 여행

중세의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루마니아

다뉴브강과 카르파티아산맥, 흑해 연안에 이르기까지
깨끗한 자연과 문화유산을 두루 간직한 루마니아로 떠나봅니다.



마블 캐릭터 적용한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 내년 초 선보인다



내년 초 1회 한정으로 글로벌 동시 판매 실시, 주문 생산 방식
마블과 현대차 디자이너 협업으로 탄생, 소장 가치 높은 상품으로 구현

우리회사는 지난 19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18 코믹콘 개막식에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사 마블과 협업해 개발한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은 마블 캐릭터를 적용한 전 세계 최초의 양산 모델로서 마블과 현대차 디자이너의 공동 협업을 통해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아이언맨 슈트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은 내년 초 글로벌 동시 판매 이벤트를 실시해 주문 생산 방식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차량의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 주문은 특정 기간 1회 한정으로 받는다. 우리회사는 지난해 6월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실시한 코나 신차 발표회 현장에서 '아이언맨 스페셜 에디션 쇼카'를 선보여 많은 관심을 얻은 바 있다. 이번에 공개한 양산형 모델은 앞서 선보인 쇼카의 디자인을 최대한 구현하면서 내외장의 디테일을 추가해 소장 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의 외장 컬러로는 1963년 마블 코믹스의 만화책 시리즈 중 하나인 '테일즈 오브 서스펜스(Tales of Suspense)'에 첫 등장

한 아이언맨의 오리지널 슈트를 따라 무광 메탈릭 그레이(질은 화색)를 선택했으며, 최신 아이언맨 슈트로부터 영감을 받아 레드 컬러가 포인트로 사용했다.

전면부는 마블 로고를 새긴 전용 후드 디자인에 아이언맨 마스크의 눈매를 닮은 분리형 주간주행등과 LED 헤드램프를 장착했으며 다크 크롬 베젤을 채택한 메탈릭 그레이 컬러의 그릴, 전용 레드 컬러 가니시를 적용했다.



IRON MAN X KONA

국내 최초 전 차종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구글-카카오모빌리티와 손잡고 혁신적 커넥티비티 서비스 국내 론칭

우리회사가 구글, 카카오모빌리티와 손잡고 고객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여줄 혁신적인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지난 12일 세계적 IT 기업 구글의 차량용 폰 커넥티비티 서비스인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판매 중인 전 차종(승용/RV)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우리회사는 이를 위해 기존 차량에도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기능을 선제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상당수의 차량 보유 고객도 간편하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80% 이상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안드로이드 오토 론칭에 따른 운전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서비스를 개시한 안드로이드 오토는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기반 각종 서비스를 자동차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인포테인먼트 기능이다.

단순히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내비게이션 화면에 보여주기만 하는 미러링 방식이 아닌 차량에 최적화된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폰 프로젝션 방식을 적용해 보다 안정적인 구현으로 운전자가 주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지원 차량의 USB 포트에 스마트폰을 연결한 뒤 차량 내비게이션 홈 화면에서 안드로이드 오토 아이콘을 선택하면 서비스가 시작된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 이용 가능한 기능은 내비게이션 및 커뮤니케이션(전화 & 문자메시지), 미디어 재생, 구글 어시스턴트(음성 지원) 등이다.

이번에 한국에 론칭한 안드로이드 오토의 기본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내비'에 적용했다. 특히 안드로이드 오토에 탑재한 카카오내비는 국내 교통 환경에서 독보적 사용성을 확보한 카카오내비의 노하우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최적화해 새롭게 개발한 것이다.

따라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축적한 방대한 위치 정보 데이터, 교통 정보, 사용자 경험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해 운전자에게 최적의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과 연동돼 간편하게 전화 통화를 연결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수신된 메시지를 안드로이드 오토가 읽어주는 텍스트 음성 환(TTS: Text To Speech)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운전자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 국내 대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인 멜론, 벅스, 지니 등도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오토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모든 기능을 음성으로 제어하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적용한 것이다. 구글의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했으므로 음성 명령으로 길 안내를 받는 것은 물론 운전 중에도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우리회사는 2015년 5월 미국에서 전 세계 자동차 업체 중 최초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를 적용했다. 국내 적용은 이보다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국내 고객의 사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2016년부터 차종별 순차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탑재해왔다.

일부 차량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만 최근 출시한 대부분의 차량은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상세 지원 대상 차량 리스트는 홈페이지(www.hyundai.com)의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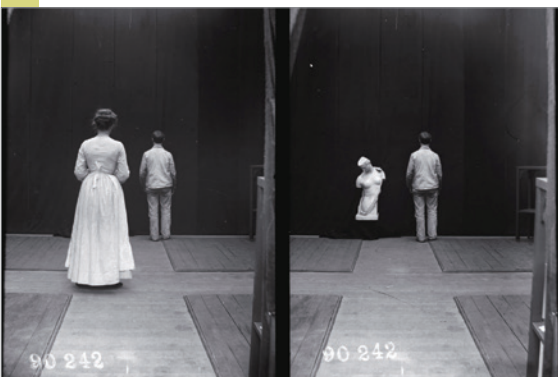
측면부는 아이언맨 마스크 메탈릭 배지, 아이언맨 마스크 휠캡을 탑재한 18인치 투톤 휠, 스타크 인더스트리(아이언맨 주인공이 영화 속에서 운영하는 회사명) 로고를 새긴 도어, 레드 컬러 사이드 미러와 사이드 가니시, 아이언맨 슈트의 근육질 형상을 연상시키는 리어 필러(C필러)를 적용했다.

후면부는 번호판 위 가니시에 아이언맨 레터링을 음각으로 새겼으며, 레드 컬러의 투톤 루프 위에 대담하게 그려 넣은 아이언맨 마스크도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의 특징이다.

실내 공간은 그레이와 레드를 기본 컬러로 아이언맨 마스크와 로고를 적용한 시트, 아이언맨 에디션 전용 그래픽을 사용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특수 설계한 전용 클러스터와 AVN, 새로운 디자인의 기어노브, 크래시패드 위에 새긴 토니 스타크(아이언맨 주인공)의 서명 등으로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만의 생동감과 독특함을 강조했다.

우리회사가 아이언맨을 선택한 이유는 '도심형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첨단 안전 SUV(Urban Smart Armor)'라는 코나의 상품 포지셔닝에 부합하기 때문이며, 디자인뿐만 아니라 현대스마트센스 등 다양한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과 주행 성능을 갖춰 내년 초 국내 시장에서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더 현대 프로젝트 <3D: Double Vision> 展 개막



우리회사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LA 카운티 미술관, 이하 LACMA(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에서 LACMA의 장기 파트너십 일환으로 '더 현대 프로젝트'의 신규 작품을 선보이는 <3D: Double Vision> 전시를 시작했다.

더 현대 프로젝트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Art+Technology)에 주목한 혁신적인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프로

젝트로서, 지난 2015년 3월 우리회사가 LACMA와 체결한 10년 장기 후원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3D: Double Vision>은 더 현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전시로, 오늘날 VR, 3D 프린팅 등 '기술과 예술의 융합' 분야의 시초이자 영감이 된 3D가 지난 175년간 미술사에서 구현한 계보를 담아냈다. 사물을 지각하는 방식의 본질, 착시의 아름다움 및 '기술-기구-인간'이 맺는 관계 등을 다루는 이번 전시는 일상적 사물과 함께 전통 미술부터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작품을 한곳에 모아 보여준다. 전시를 통해 선보이는 60여 점의 작품은 관람객에게 두 눈으로 하나의 입체적인 이미지를 합성하는 '양안시'가 3D의 시각적 원리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며,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동원해 3D에 대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우리회사는 최첨단 VR과 다양한 영상 기술의 시초인 3D의 계보를 예술 작품으로 만나봄으로써 기술과 과학이 예술 안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발현되고 발전해왔는지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롭고 학구적인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8 국가고객만족도(NCSI)' 자동차 부문 1위 수상

우리회사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2018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자동차 산업 총 6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 조사 대상 전 부문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고객에게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임을 입증했다.

지난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국가고객만족도' 시상식이 열렸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NCSI는 5대 광역시에서 차량 출고 6개월부터 3년 사이의 고객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해 품질과 판매, 서비스 등 전반적 만족도를 조사한다.

우리회사는 이번 조사 결과 RV 부문과 소형, 준중형, 중형, 준대형, 대형 부문에서 1위를 획득하며 우수한 상품성과 서비스를 입증했다. 특히 준대형과 대형 차급의 경우 기대 수준, 인지 품질, 인지 가치 등 모든 요인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거두며 7년 연속 1위에 등극했다. 또한 RV 차급은 싼타페 등 중형 SUV에서의 꾸준한 우위를 바탕으로 13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우리회사는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가 결실을 본 만큼 앞으로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8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우리회사는 지난해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담은 <2018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8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회사가 국내외에서 펼친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및 비전을 담은 것으로 올해로 16번째 발간했다.

우리회사는 2015년부터 가독성 향상과 정보의 선명한 전달을 위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매거진' 섹션과 '보고서' 섹션으로 구분해 발간하고 있다.

매거진 섹션은 핵심 이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차 주요 연혁, 2017년 하이라이트, CSV 하이라이트로 구성했다. 보고서 섹션에서는 올해 재정립한 CSV 전략체계와 5대 지속가능성 가치별 성과를 자세하게 기술했다.

우리회사는 새롭게 개정한 지속가능경영 보고 표준인 GRI Standard 지표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및 정보 공개 수준을 강화했으며, 글로벌 경제·환경·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와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을 이번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제시했다.



THEME

여러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make



일러스트 허예리

위대한 유산 글_한미림 에세이스트

자연의 삶, 문화를 만들다 정원을 만드는 동화 작가 타샤 튜더

자연주의 감성, 대중을 사로잡다

타샤 튜더(Tasha Tudor, 1915~2008)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거닐며 자연과 어우러진 삶을 살았던, 미국의 대표 동화 작가이자 삽화가다.

어려서부터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한 그녀는 열다섯 살에 학교를 그만두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동물을 키우고 꽃을 가꾸는 등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지향한 그녀는 그림을 그릴 때도 이런 감성을 고스란히 녹여냈다.

스물세 살에 출간한 첫 그림책 <호박 달빛>을 통해 타샤 튜더의 섬세한 수채화가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후 70여 년 동안 <비밀의 정원>, <소공녀>의 삽화를 비롯해 100여 권의 그림책을 내놓았다. 그녀는 미국에서 매년 뛰어난 어린이 그림책 삽화가에게 수여하는 문학상인 콜더컷상을 두 번이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동화 작가에게 수여하는 레지나 메달을 받는 등 오랜 시간 그림책 작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떨쳤다. 특히 자연주의 감성이 가득한 그녀의 그림이 백악관의 크리스마스카

드에 사용되면서 타샤 튜더는 오랜 기간 미국인들의 폭 넓은 지지와 사랑을 받았다.

그녀의 그림책은 운이 맞는 글과 부드러운 색감의 세밀하고 현실감 넘치는 삽화가 훌륭한 조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책 본문과 삽화의 테두리를 정교하게 묘사한 꽃, 새, 동물 그림으로 장식한 것이 특징으로 원본 그림책들은 미술관, 도서관, 전 세계의 많은 개인 수집가가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그녀의 삶이 녹아든 정원, 또 다른 예술이 되다

타샤 튜더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정원'이다. 그녀는 자신의 명성을 만든 동화작가, 삽화가로서의 삶보다도 자연 속에 스며드는 삶을 더욱 원했다. 어릴 적부터 자연에서 자급자족하며 느리고 단순한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가졌던 타샤 튜더는 친여섯 살에 그림책 인세로 버몬트주에 있는 땅 약 100만㎡(30만 평)를 사서 40여 년에 걸쳐 정원을 가꿨다. 그녀 인생의 가

5

여기, 강박 증세를 보이는 과묵한 성격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식당에 갈 때마다 개인 수저를 챙겨야 할 정도로 깔끔한 사람이죠. 그런 그의 신경질적인 모습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 덕분에 남자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이 대사 하나만으로도 그 영화는 오랫동안

몽클한 여운을 남겨줍니다.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힘, 나아가 특별한 일상, 더 나은 내일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 곁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요?

생생 인터뷰

요술 풍선으로 만드는 동심의 세상

트럭차체도장부 변희석 기술주임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트럭차체도장부에 근무하는 변희석 기술주임입니다. 올해 우리회사에서 진행한 풍선 아트 프로그램에 참여해 2개월 정도 배웠는데, 그 뒤로도 꾸준히 만든 풍선 아트로 아이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Q. 풍선 아트를 통해 느끼는 즐거움은 무엇인가요?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대전 동물원에 나들이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동물원에서 풍선 아트로 퍼포먼스를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흥미로웠고 언젠가 배워보고 싶었는데 때마침 회사에 프로그램이 생겨서 바로 신청을 했지요. 처음 풍선을 만들기 전에는 내가 가진 재능에 대해서만 고민했는데, 풍선을 만들며 봉사를 다니다 보니 봉사에 대한 즐거움이 점점 커지네요. 풍선 아트는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교감하고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남다른 것 같습니다.

Q. 작품을 만들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무엇보다 풍선 자체가 동심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풍선만 봐도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술 풍선을 완성해 선물할 때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만듭니다. 물론, 아이템에 따라 풍선에 들어갈 바람의 양을 잘 조절해 만들어야겠지요.

Q. 완성한 작품은 어디에 혹은 누구에게 선물할 예정이신가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냥 가르치는 것보다는 풍선 아트를 결들이면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도 높아지고 그만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인이나 동료의 자녀들에게도 선물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이들과 많은 분에게 풍선으로 즐거움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지역 아동센터에서 피에로 복장을 하고 50분 동안 음악에 맞춰 풍선 아트 퍼포먼스를 펼친 적이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그 50분을 채우기 위해 틈틈이 동영상을 보면서 시나리오를 짜고 음악을 선별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지만 아이들의 호응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퍼포먼스를 결들여 더 많은 이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Q. 이 일에 관심 있는, 참여하고 싶은 사우들에게 풍선 아트를 소개해주신다면?

풍선을 만지면서 어릴 때의 동심으로 돌아가는 추억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풍선으로 즐거움을 선물할 수 있는 봉사에서 오는 뿌듯함은 그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어요. 분명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일인데 오히려 제게 더욱 큰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풍선으로 마음이 훈훈해지는 경험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 돋보기 글_ 장근영 심리학박사

무엇이든 만들어볼까요?

6

손을 쓰는 인간의 본성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는 손재주 좋은 사람,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기원전 200만 년 전에 살았던 원시인류를 가리킨다.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인류에 대해 호모 파베르(Homo Faber)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스스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사람들은 뇌가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들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바로 우리의 몸, 그중에서도 손을 움직이는 것이다. 뇌 과학자들은 뇌의 각 부위가 어떤 기능을 담당 하는지 하나하나 조사해서 일종의 뇌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지도를 보면 손이 우리의 뇌에서 차지 하는 비중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우리 뇌의 운동신경 중 절반 이상은 손으로 들어오는 촉각을 해석하고 그 손을 섬세하게 움직이는 데에 사용된다. 뇌는 손을 조작하기 위한 존재라고 말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다. 우리의 손이 그렇게 중요해진 건 결국 그 손을 사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조작하 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손으로 만지고 만들어내는 놀이를 좋아한다. 뭔가를 만들면서 손을 움직이는 활동이 뇌를 성장하게 하기 때문이다. 손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본능은 어른이 돼서도 계속 이어진다.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프라모델을 조립하거나 그림을 그 리거나, 심지어 공구를 사용해서 의자나 테이블 같은 가구를 만드는 사람도 많다. 실제로 만들기는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수단이다. 영화 <줄리 & 줄리아>의 두 주인공 줄리(에이미 애덤스)와 줄리아(메릴 스트리프)가 선택한 만들기의 대상은 음식이다. 줄리는 앞뒤 딱 막힌 자신의 인생에서 느끼는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리책을 보며 프랑스 요리 만들기에 도전한다. 미국 사람들에게 프랑스 요리의 참맛을 제대로 소개한 그 명저의 저자인 줄리아 차일드는 아이를 낳지 못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프랑스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가 마침내 이 책으로 미국인들에게 프랑스 요리 전문가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만드는 것의 진짜 가치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뭔가를 직접 만들어서 쓸 일은 별로 없다. 그래서 '만들기'라고 하면 앞에서 말한 음식 만들기를 제외하고는 기껏해야 놀이나 취미 생활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뭔가를 만들 어내는 건 원초적인 생존의 수단이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를 보시라. 척 놀랜드(통 헝크스)는 비 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무인도에 떨어져 4년을 보내게 된다. 처음에는 어쩔 줄 모르던 그는 점차 이것저것 도구를 만들어내며 환경에 적응해간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직접 만든 뗏목을 타고 그 섬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이 영화는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인터넷에 보면 현대 문명의 도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연에서 얻은 것만으로 집을 짓는 과정을 보여주는 일련의 동영상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동영상의 높은 조회 수가 현대인들이 얼마나 원초적 만들기에 매력을 느끼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렇듯 만들기가 삶의 필수 요소라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아마도 그건 친구와 동료, 그리고 가족일 것이다.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든,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 그것의 의미를 알아주고 가치를 인정해줘야 만들기의 의미가 완성될 수 있다. 앞서 말한 영화 <캐스트 어웨이>의 척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존재는 배구공에 야자나무 가지를 꽂아 만든 가상의 친구 '월슨'이었다. 그는 월슨을 밤낮 4년간의 외로움을 버텼고, 월슨과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냈다.

베르그송이 말한 호모 파베르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스스로 변형시키고 결국 자기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 만들어내는 활동을 멈출 때 우리 뇌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삶은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물론 내가 만드는 것들이 의미와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존재가 내가 만든 것들의 의미와 뿌듯함을 완성시켜줄 테니까.

PEOPLE

맛있는데이트 글·사진_ 이정탁 기자(울산)

‘판매 거장’과 후배 카마스터들의 이유 있는 의기투합

마산동부지점 김성곤 영업부장, 최동주 영업차장, 이대현 영업차장, 이재관 영업사원

판매 거장과 맛집 명가의 공통점

요즘 마산동부지점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친다. 평소 ‘영업의 달인’으로 불리는 김성곤 영업부장이 입사 28년 8개월 만에 판매 누적 대수 5천 대를 돌파하며 ‘판매 거장’으로 등극했기 때문이다.

김성곤 부장은 지난 1989년 입사한 후 1993년 누적판매 500대를 시작으로 1995년 1천 대, 2001년 2천 대(판매 장인), 2007년 3천 대(판매 명장), 2010년 3천500대에 이어 2013년 4천 대(판매 명인)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4월 5천 대를 판매해 ‘판매 거장’에 등극했다. ‘판매 거장’은 회사가 카마스터에게 헌정하는 명예의 전당 최고위 등급이다.

이번 일로 한동안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했던 마산동부지점은 이 여세를 몰아 손명한 지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올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쳤단다. 이런 가운데 김성곤 부장은 노하우 전수라는 명목으로 후배 카마스터 3명과 유쾌한 만남을 가졌다.

장소는 마산의 명물 아귀찜 거리. 아귀찜 거리에는 제법 많은 아귀찜 집이 모여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마산 아귀찜의 원조라 꼽히는 ‘오동동 진짜초가집’에 들어섰다. 입구에서부터 오래된 집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넓지 않은 공간에 딱 찬 손님들의 연령대가 높은 것만 봐도 이 집의 연륜을 짐작할 수 있었다. 메뉴판 옆에 걸려 있는 안내판에 1965년도부터 아귀찜을 개발해 팔았다고 쓰여 있으니 50년이 족히 넘는 것이다.

맛집의 이모저모를 둘러보는 사이, 이 집의 대표 메뉴인 아귀 수육과 아귀찜에 아귀탕까지 아귀 요리 삼총사가 차례로 나왔다. 김성곤 부장은 이 집이야말로 마산 토박이들이 인정하는 맛집이라고 자랑했다.

아귀 요리 삼총사를 골고루 맛본 이대현 차장은 “한번 먹으면 그 맛을 잊을 수 없다는 이곳의 아귀찜은 육질도 부드럽고, 콩나물이 아삭아삭해 밥도둑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관 사우드 “아귀찜은 식감이 아주 쫄깃하고, 아귀 수육은 내장이 특히 맛있고, 아귀탕은 시원한 국물이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며 만족감을 한껏 내비쳤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영업 노하우도 나눠요~



66

영업의 진정한 매력은 고객이 나에 대해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느끼는 기쁨이지요. 10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11번째는 분명 고객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99

7



오늘의 메뉴

아귀 수육과 아귀찜



오동동진짜초가집원조아귀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남3길 8-2 055-246-0427

‘스스로 믿고 도전하는 것’이 영업의 노하우

본격적인 식사에 앞서 김성곤 부장은 먼저 “많은 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판매 거장 등극 기념식 행사를 잘 마쳤다”며 “앞으로 힘닿는 데까지 후배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최동주 차장은 “부장님은 이미 우리 모두의 롤 모델이죠. 함께 근무하는 자체만으로도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김 부장은 같은 길을 걷는 후배들에게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지라고 당부했다. 그의 성실함은 오전 7시면 출근했던 신입사원 때부터 일찍이 드러났다. 또한 창원기계공고와 경남대 기계과를 졸업한 그는 자동차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노하우를 세일즈와 함께 버무려 고객 감동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 김성곤 부장은 ‘스스로 믿고 도전하라’고 강조했다. “영업의 진정한 매력은 고객이 나에 대해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느끼는 기쁨이지요. 10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11번째는 분명 고객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니까요”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동주 차장은 “부장님은 1인 3역 이상을 해내시는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도 완벽한 데다 22년째 창원생활체육 배드민턴을 하고 지점 내 동호회 모임도 이끄는 등 사내외로 활발한 활동을 하시니까요. 이 점이 판매 거장이 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대현 차장, 이재관 사우드 또한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알싸한 아귀찜처럼 오늘 만난 판매 거장 멘토와 카마스터 멘티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의기투합하며 함께 더 열심히 달려자고 결의를 다졌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호흡이 척척, 앞으로 김성곤 부장과 후배 카마스터들이 만들어갈 마산동부지점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까닭이다.

한 줄 맛 평가

김성곤 영업부장 : ★★★★★

“건조시킨 아귀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일품이네요.”

최동주 영업차장 : ★★★★★

“처음에는 뼈밖에 안 보이는 거 같지만 갈비처럼 요리조리 뜯어 먹는 재미가 있어요.”

이대현 영업차장 : ★★★★★

“아귀 수육을 시키면 간이 나오는데 고소한 맛이 최고예요.”

이재관 영업사원 : ★★★★★

“내장 특유의 냄새가 있지만 그만큼 더 맛있죠.”

법률학개론 글_한준호 울산법무지원팀 대리

영화 <끝까지 간다>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형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주인공 형사 고건수(이선균)는 어머니의 장례식 날, 급한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향하던 중 아내의 이혼 통보, 갑작스러운 내사 소식까지 겹친 스트레스 폭발 직전 상황에서 실수로 사람을 치는 사고를 일으키고 만다. 그러고는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어머니의 관에 시체를 숨겨 땅속에 묻어버린다. 그런데 목격자 박창민(조진웅)이 등장해 시체를 가져오라고 고건수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8



영화 <끝까지 간다>의 한 장면

교통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2항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로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여부

지난호에서 과실치사죄를 다루면서 교통사고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교통사고 관련 법리를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가해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거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시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이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낸 사고로 처벌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처벌의 특례로서 반의사 불벌원칙(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음)과 종합보험 가입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사고, 12대 중과실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돼 형사 처벌을 받으며 뺑소니 사고,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뺑소니 사고의 경우 도주 차량 운전자,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위험 운전 치사상에 의한 가중처벌)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감경될 수도 있으므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결국 영화 속 주인공 고건수의 과실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고건수는 피해자의 시체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1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면 관련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형량이 감경될 수 있음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해 쌍방 간 합의를 할 때 형사 합의 금액은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초진 주당 50만~70만 원으로 정해지는 것이 관례이며,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형사 합의가 이뤄집니다. 형사 합의를 보기로 협의했다면, 피해자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함께 작성해 보험사에 보내야 합니다. 보험사와 피해자가 민사 합의 시 형사 합의 금액이 공제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QUIZ

지난호 정답

5



953호 당첨자

노태성(프레스금형기술1부)
김준호(품질관리1부)
이기영(안전보건4팀)
정하연(송탄지점)
이혜경(아산차체부)
함정윤(타이어설계팀)
추화성(선행상품기획팀)
성낙준(R&D인사지원팀)

다른 그림 찾기

두 장의 사진에서 서로 다른 5곳을 체크해 8월 7일까지 편집실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1만 원, 매월 말 송부)을 드립니다.



내 몸에 쌓인 火, 병을 키운다

글_ 이준규 의학칼럼니스트·보건학박사

H씨(52세)는 요즘 분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짜증이 밀려오고, 별일도 아닌데 자꾸만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져만 갔다. 또 지나간 일에 대한 분노가 밀려와 자다가도 깨기 일쑤. 얼마 전부터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답답해 병원을 찾았다가 화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잠시뿐이라며 지나치기 쉬우나 심하면 고혈압이나 중풍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화병에 대해 알아보자.

Check List ✓

- ①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거나 자고 나도 깨운하지 않다. ☐
- ② 신경이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
- ③ 두통이나 소화 불량에 시달린다. ☐
- ④ 쉽게 숨이 찬다. ☐
- ⑤ 화가 나면 얼굴과 온몸에 열이 오른다. ☐
- ⑥ 가슴이 두근거리고 명치끝이 딱딱하게 느껴진다. ☐
- ⑦ 늘 하던 일에 갑자기 의욕이 없다. ☐
- ⑧ 입안에 헛바늘이 자주 돋는다. ☐
- ⑨ 아랫배가 따갑다. ☐
- ⑩ 목 안이 짝 찬 느낌이 든다. ☐

3개 이하: 화병 초기 증상입니다. 최근에 화가 날 만한 일이 없었거나 질병의 원인 없이 증상이 계속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5개: 화병으로 진단됩니다. 방치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심해지므로 치료를 통해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5개 이상: 극심한 상태의 화병 상태입니다. 조속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길 권합니다.

공인된 공식 병명 '화병(火病)'

울화병(鬱火病)이라고도 부르는 화병은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명의 하나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우리나라 문화 특유의 증후군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식 병명이 됐다.

화병은 주로 마음이 원인이 돼 생기는 것으로, 억울한 감정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고 억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신경성인 '화' 즉, '울화'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병증을 일컫는다. 이를테면 심리적인 쇼크나 정신적인 갈등에 의해서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증상을 수반하는 병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병은 스트레스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질병으로, 그 증상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예고 없이 터져버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은 스트레스를 매우 잘 이겨낸다 생각하고 낙천적이라고 느낄지 몰라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갑작스럽게 폭발하게 되는 것이다.

외부적인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

화병은 가난이나 실패, 좌절 같은 사회적, 외부적인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하며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상 속상함, 억울함, 분함, 화남, 증오 등의 감정을 쉽게 풀어내지 못하고 담아두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1차적으로는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환자 대부분이 사소한 일에도 짜증과 신경질을 내는 등 예민한 상태가 지속되고,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억울함과 분한 감정을 자주 느끼며 공격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진 다. 이 외에도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불면증을 겪기도 하고, 이유 없는 한숨이 늘고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온몸에 열이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목이나 가슴이 조여와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속 쓰림과 메스꺼움을 느끼고, 이로 인해 식욕 장애나 소화 장애를 겪기도 한다. 심하게는 만성적인 분노로 인한 고혈압이나 중풍 등의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혹은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가슴속 응어리, 살살 다스리며 풀어야

화병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 가슴속의 응어리를 풀어야 한다. 그러나 화가 난다고 해서 그 즉시 표출한다면 더욱 악화된다. 마치 불발탄을 해체하듯이 천천히 침착하게 화를 다스리며 풀어야 한다. 따라서 스스로의 노력 혹은 가족의 도움으로도 풀기 어렵다면 전문의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 해소 또한 화병 예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날 받은 스트레스는 그날 해소할 수 있도록 운동이나 음악 감상 등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환자 본인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 힘든 일은 힘들다고, 괴로운 일은 괴롭다고 자기 스스로가 인식하는 것이다. 한 번쯤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자신의 성향, 체질, 건강과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해보는 방법도 도움이 된다.

정답 :



발신 :

수신 :

문화홍보팀 <현대자동차> 신문
담당자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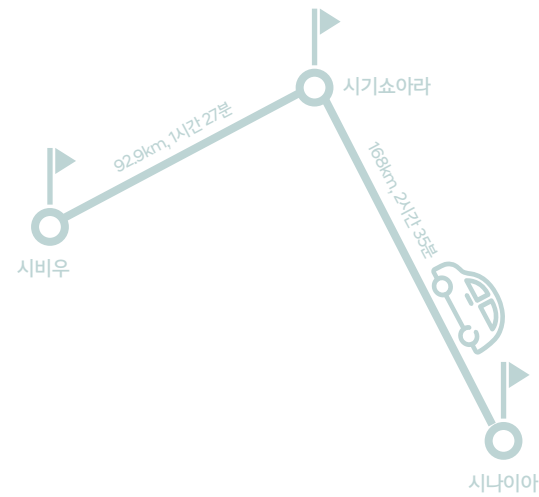
각 코너에 소개할 만한 팀(부서), 사우를 제보해주시요.
취재가 이루어질 경우 제보해주신 사우분께도 모바일
커피 쿠폰(1만 원, 매월 말 송부)을 드립니다.

*퀴즈 응모 시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기재해주세요.

“신청합니다!”

중세의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루마니아

일반적으로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서유럽에서 벗어나 동쪽으로 갈수록 풍요로운 문화와 전통의 여행지들이 나타난다. 다뉴브강과 카르파티아산맥, 그리고 흑해 연안에 이르기까지 깨끗한 자연과 문화유산을 두루 간직한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를 정점으로 구석구석에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중세의 마을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다양한 생물학적 종을 갖춘 다뉴브 삼각주가 자리하고 있다. 전통문화와 예술혼이 충만한 최고의 여행지, 루마니아로 떠나본다.



10



카르파티아산맥이 품은 진주, 시나이아

루마니아 중부에 위치한 시나이아는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카르파티아의 진주'라 불리는 최고의 휴양지다. 1690년 왈라키아 지방의 귀족 미하일 칸타쿠지노가 성서 속 시나이산 여행에 영감을 받아 작은 수도원을 짓고 이름을 시나이아라고 지은 게 이 도시의 기원이다. 루마니아의 첫 번째 왕 카를 1세는 시나이아 숲속에 여름 별장을 짓기로 결정하고 1883년 마침내 루마니아의 국보 1호 펠레슈 성을 완공했다. 이후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성장했고, 19세기 말에 이르러 시나이아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루마니아의 비공식적인 여름 수도 구실을 하게 됐다. 한참을 숲속으로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눈앞에 우아하고 웅장한 펠레슈 성이 모습을 드러낸다. 정교한 조각들과 화려한 내부 벽화들, 그리고 그 위로 흐르는 구름과 맑은 공기는 진정 시나이아가 카르파티아의 진주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한다.

드라쿨라 백작의 도시, 시기쇼아라

시기쇼아라는 드라쿨라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인 블라드 체페슈 3세가 태어난 작은 마을이다. 실존 인물인 블라드 백작은 1456년부터 1462년까지 왈라키아 지방의 통치자였다. 마을 시계탑 바로 앞에 드라쿨라 백작의 생가가 있는데 1431년 태어난 후 가족과 함께 1435년까지 실제로 살았던 집이다. 집 입구에는 조금 촌스럽지만 철로 만든 용이 걸려 있다. 독립과 리더십, 힘과 지혜를 상징하는 용의 라틴어 '드라코(Draco)'와 드라쿨라(Dracula) 백작의 이름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 실제로 시기쇼아라 주민을 비롯한 루마니아인들은 블라드 백작을 훌륭한 위인이라고 칭송했다.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브램 스토커는 이 블라드 백작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가공의 인물인 드라쿨라 백작을 창조했다고 한다.



유럽 문화의 수도, 시비우

루마니아 중부 부쿠레슈티 북서쪽에 위치한 시비우는 2007년 유럽 문화의 수도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이자 <포브스>가 '유럽에서 가장 살고 싶은 이상적인 도시 8위'로 선정한 곳이다. 또한 루마니아 최초의 병원(1292년), 최초의 약국(1494년) 그리고 가장 오래된 박물관인 브루켄탈 박물관이 문을 연 역사적인 도시로, 1544년 루마니아어로 된 책을 최초로 인쇄한 곳도 바로 여기다. 아름다운 바로크 양식으로 18세기에 건설한 로만 가톨릭 성당과 루마니아 최고로 꼽히는 박물관이 자리한 브루켄탈 궁전이 있어서 더욱 아름답다. 루마니아 최초의 철굴 다리인 '거짓말의 다리(Podul Minciunilor)'는 여기에서 상인이 손님을 끌기 위해 과장된 거짓말을 하거나 한창 사랑에 빠진 연인이 금세 변해버릴 헛된 사랑의 약속을 했던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고 전해온다. 시비우 주택들의 지붕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시자의 눈처럼 생긴 독특한 창문이 달려 있다. 채광창인데 마치 그 옛날 독재자가 지배하던 시절 국민들을 억누르던 '감시의 눈'과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남아 있다.

11

한뼘 노트

드라쿨라의 모티프가 된 블라드 백작

소설 <드라쿨라>에 영감을 준 인물이자 루마니아의 영웅으로도 알려진 블라드 3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사실 블라드 백작이 살았던 15세기에는 루마니아라는 명칭도, 국가도 존재하지 않았다. 루마니아는 라틴어 로마누스(Romanus)에서 비롯된 단어로 '로마의 시민'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16세기 르네상스 시절의 인문주의자들이 트란실바니아, 왈라키아, 몰다비아 세 지역을 여행하면서 불인 데서 기원했다고 한다. 훗날 19세기에 오스만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루마니아라는 국가명이 된 것이다.

드라쿨라 캐릭터의 기원이 된 블라드 체페슈는 블라드 2세의 뒤를 이어 왈라키아 지역의 영주로 마을을 통치했다. 사실 '체페슈'는 루마니아어로 가시 혹은 꼬챙이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그의 별명이 됐다. 이유인즉 뛰어난 전술로 강대국 오스만투르크의 침공에 저항한 루마니아의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은 반면 적과 통치민들을 잔혹한 형벌로 다스려 악명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가 저지른 가장 유명한 악행은 투르크군 생존 포로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귀족 및 평민, 그리고 범죄자들의 몸에 나무 꼬챙이를 꽂아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게 한 일이다. 소설 <드라쿨라>의 작가 브램 스토커는 이 잔혹한 통치자에게 괴기스러운 드라쿨라의 이미지를 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얀 피부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드라쿨라는 사람들의 피를 먹고 산다는 독특한 캐릭터로 지금까지도 많은 영화 속에 등장하며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덕분에 소설 속에 등장한 브란 캐슬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루마니아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가파른 언덕에 있는 브란 캐슬의 외관은 전형적인 중세 유럽의 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붉은 지붕에 하얀색 벽이 자연 배경과 어우러져 드라쿨라가 살았다는 괴기스럽고 음침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 좁고 비밀스러운 방과 통로 등을 거닐면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드라쿨라가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실제 인물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소설이 얹혀 만들어진 드라쿨라. 브란 캐슬은 이 허구적 상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드라쿨라의 성'으로서 루마니아를 여행하는 많은 이의 방문을 재촉하고 있다.

tip

루마니아 여행 정보

- ① 루마니아는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아서 기차는 느리고 버스는 산맥을 피해 한참을 돌아서 가기 때문에 루마니아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 시에는 차라리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 ② 루마니아의 전통 음식인 사르말레는 식초에 절인 양배추 혹은 포도 나무 잎에 다진 고기와 밥을 감싸서 찐 음식으로,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계속 먹다 보면 김치와 비슷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고 싶나요?

손재주가 있는 사람에게 '금손'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하루 온종일 만들어도 힘든 걸 몇 시간 만에 똑딱 만드는 마법을 펼치니까요. 하지만 결코 그 결과물만으로 평가해선 안 되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성미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무엇이든 만들어내기까지 들인 정성은 '금손' 못지않다고 자부할 수 있으니 말이지요. 아침밥부터 보고서까지 결코 사소하지 않은 수많은 무언가를 만드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12

01

직접 만든 만큼 정성이 가득한 선물을 주거나 혹은 받았던 추억을 소개해주세요

» 멀리 여행 간 친구에게서 온 편지가 기억에 남네요. 오랫동안 떠나 있으면서 제가 생각났다는 그 마음이 느껴져 감동이었습니다.

- 부산서비스센터 고객지원팀
장원자 대리

»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글로 짝 채운 작은 노트를 결혼 20주년을 기념해 아내에게 선물했습니다. 물론 책갈피에 작은 성의와 함께 말이죠.

- 해외공장지원팀 우재준 책임연구원

» 종이 모형 항공기를 6개월에 걸쳐 만들었는데 한 동료가 중학생 아들에게 주고 싶다고 해서 선물한 기억이 납니다. 그 아들이 종이 모형 항공기를 받고 너무 좋아 아빠를 꼭 안아주었다고 하네요.

- 북부서비스센터 하이테크지원팀
홍도영 정비선임기사

»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아버지께서 직접 목재로 만들어주신 요람을 잊을 수 없어요. 너무 무거워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가족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차량생기1팀 허우준 대리

»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직장 생활 4년 차까지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내 마음속의 멘토들께 직접 네잎클로버를 따서 만든 액자와 손편지를 선물했습니다. 여전히 잘 갖고 계시겠죠?

- 시화지점 장성준 영업대리

» 10년 전 부모님께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부산에 있는 셀프 스튜디오에서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해드렸습니다. 취미로 사진을 찍고 있던 터라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할 수 있었어요.

- 소재1부 김성진 기술사원

»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니 친정 부모님께서 손수 육포와 강정을 만들고 개별 포장까지 하셔서 저와 남편 회사로 각각 가져다주셨을 때,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 중국사업관리1팀 채송화 대리

» 아내가 프랑스 자수로 내 얼굴을 수놓아 주었어요. 한 달 동안 자수에 들인 정성이 정말 고마웠어요.

- 상용의장설계팀 김병문 책임연구원

» 영화 <타이타닉>을 좋아하는 여자 친구를 위해 2m 길이의 모형 타이타닉을 2주에 걸쳐 완성해 선물한 것이 기억에 납니다.

- 상용선행품질팀 이지원 사원

» 어릴 때 아버지께서 옆드려 공부하지 말라고 개인용 앉은뱅이책상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 두고두고 기억납니다.

- 소재금형기술1부 김남환 부장

» 아이의 성장을 기록해놓은 카페가 있습니다. 요즘도 같이 보면서 추억을 공유하죠.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카페 전체를 선물로 줄 거랍니다.

- 파워트레인열유동해석팀
박현욱 책임연구원

» 중국 주재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전 직원이 동영상으로 전한 따뜻한 인사 한마디. 볼 때마다 감동적이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 서비스기술교육운영팀 양홍석 차장



02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만들어 완성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 엄마께서 매년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기만 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뜨개질한 가방을 받으시면 어떠실까요? 너무 실력이 뛰어나셔서 마음에 안 드실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 판매금융팀 한규선 사원

»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해서 직접 고른 원두로 내린 커피를 아내와 함께 결혼기념일에 나누고자 합니다.

- 동두천지점 김현준 영업부장

» 어느덧 결혼 20년 차입니다. 시부모님 생신상과 제사상은 해마다 차려드렸지만 아직 친정 부모님 생신상은 잘 챙기지 못해 마음에 남았어요. 올해에는 멋지게 한 상 차려 드리고 싶습니다.

- 품질관리3부 손선근 기술기사

» 뜨거운 여름! 저를 위한 서머 아이템으로 예쁜 밀짚모자와 동남아 여행에 어울릴 니트 그물 가방을 만들 계획이에요. 이번 휴가 때 그 아이템들을 들고 여행 가서 사진 많이 찍어 올 거예요.

- 프레스3부 신영주 사원

» 아두이노를 이용하는 자율주행 미니카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을 넘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래 자동차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고자 합니다.

- 연료전지설계팀 김종명 연구원

» 가족사진이 담긴 2019년 달력을 미리 만들어 가족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 브랜드전략팀 페르달 사원

» 올해 우리 두 딸을 위해 곡을 만들 예정입니다. 사랑스러운 두 딸의 목소리가 들어간 곡을 만들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네요.

- 생산관리1부 김병설 기술사원

» 결혼하고 살이 많이 찌서 좋아하는 축구를 못하게 됐습니다. 다시 멋지게 몸을 만들어서 축구 동호회에 주전으로 복귀하는 게 목표입니다.

- 엔진생기1팀 김강연 사원

» 아이들을 위해 상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컸다는 의미로 주는 상장, 참 의미 있겠죠?

- 엔진변속기안전보건팀 조두진 과장

» 집 인테리어를 위해서 가구도 조립하고 자잘한 수리를 하고 있어요. 평소 공구도 잘 만져보지 않았는데 직접 수리하고 조립하면서 배워가는 중입니다. 부모님 덕과 제 신혼집을 직접 꾸며보고 싶습니다.

- 연료전지기술개발팀 김용민 연구원